

나는 왜 生物學을 選擇하였는가

李 敏 載
(前 江原大 總長・學術院 會員)

나의 中學時代와 進路

中學校에 합격하고 入學式이 있던 날 필자의 아버님은 그 입학식에 참석하고 下宿房으로 같이 오셨다. 아버님도 펴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고 필자도 큰 일이나 해낸 것 같은 기분으로 약간 들떠 있던 때였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가 살던 咸北地方에는 日本人 子弟를 위한 中學校 하나에 韓國 사람 子弟를 위한 高等普通學校가 하나밖에 없었고 그 밖에는 商業學校와 農業學校가 하나씩 있을 뿐이었다.

필자는 어렸을 때 乾性肋膜炎을 앓아 항상 부모님께 健康 때문에 걱정을 끼쳐 왔는데 韓國 사람의 子弟는 의례히 高等普通學校에 갔어야 했으나 그 곳에는 上水道도 없고 衛生施設이 좋지 않았다. 이에 아버님께서 日人을 위한 中學校이 있던 곳에는 상수도와 위생 시설이 完備되어 있으니 高普 아닌 中學校에 가라는 것이었다.

普通學校를 졸업하는 同級생들은 모두 高普로 가는 판인데, 필자 혼자만 中學校에 지망하고 入試를 치른다는 자체가 어린 마음에도 흠족하지는 않았으나 “너는 몸도 약하니 上水道조차 없는 곳에 보낼 수는 없으니 羅南에 있는 中學校

가야 한다”라고 하시기에 필자는 그래야 하는가 보다 하고 入試準備도 唯獨히 혼자서 해왔던 터였다.

다행히 合格되고 오늘 입학식까지 끝났으니 아마도 아버님은 펴이나 즐거웠을 것이고, 필자도 혼자서 敵陣을 突破한 것 같아 기분이 들떠 있을 수밖에 없었다.

필자의 故鄉 會寧과 羅南은 急行列車로 2시간 20분쯤 걸리는 거리이지만 그 때는 꽤 먼 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필자는 새 모자를 쓰고 새 校服을 입고 필자가 지금부터 살아야 할 下宿房에 아버님과 같이 새로 산 책상 옆에 앉았다.

아버님은 갑자기 엄숙한 표정으로 “너는 오늘부터 어엿한 中學生이다. 이제 모든 말도 알아들을 때가 되었으니 내 말을 명심해 들어라” 하시기에 필자는 갑자기 緊張이 되어 “네, 네”라고 거듭 대답했다. “지금 日人과는 달리 鮮朝 사람들은(그 때는 鮮鮮 사람이라고 할 때여서 그대로 적기로 한다) 義務敎育도 실시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朝鮮 사람의 자녀는 普通學校도 졸업 못하는 예는 얼마든지 있다. 아마 보통 학교 6년의 敎育을 받는 數보다 받지 못하는 수가 더 많을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다행히 보통학교도 졸업했으니 우리 朝鮮 사람의 父母로서는 子息에게 할 일을 다했다

고 보아야 한다. 네가 오늘 中學生이 되어 더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恩惠요, 둘째 父母를 잘 만난 德이요, 셋째 네가 그에 부응해 공부를 잘한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께 感謝할 줄 알아야 하고, 부모의 恩惠에 마음껏 고마움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나로서 볼 때는 朝鮮 사람으로서 平均 이상을 이미 너에게 베풀었으니 이제부터 너에게 베풀은 모두 너에게 빚을 지우는 것으로 나는 생각할 것이다. 그러기에 너는 지금부터 父母에게 빚을 지어 가며 공부한다는 覺悟로 열심히 공부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너만 공부를 잘한다면 專門學校나 더더욱 大學이나 심지어 外國留學까지라도 시킬 用意은 있다. 그런데 이제부터의 공부가 實際로 어렵고 너의 一生을 左右하는 길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는 세 가지 條件이 구비되어야 이룰 수 있는 險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 첫째는 이 아버지의 健康이 그 때까지 유지될 뿐 아니라 내가 하는 事業들이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 둘째는 내 健康이 그것을 이겨 낼 수 있으리 만큼 강인해야 한다는 점, 셋째는 내 努力과 머리가 그것을 爭取할 만큼 좋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 세 條件만 구비된다면 무슨 일든 못하겠느냐. 지금 내가 말한 뜻을 다 알아들었느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됐다” 하시고는 맛 있는 저녁을 사주시겠다고 필자를 데리고 으리으리한 식당으로 가셨다.

필자의 아버님은 韓日合邦 후에 서울에 있던 漢城師範學校(日帝時 京城師範의 前身)를 나오시고, 會寧에서 金줄 먼 金단추 洋服에 긴 칼을 차고 會寧普通學校의 訓導로 2년 정도 계시다가 장래를 생각하니 아무리 出世해 봤자 郡守밖에 못할 바에야 男兒一生 군수를 바라고 살 수는 없다 하여 양복과 칼을 벗어 던지고 實業界에 진출하여 소위 自手成家를 했다고나 할까 6~7개 株式會社도 운영하고 閔島日報라는 新聞社도 갖고 있던 때라 무언가 필자에게 큰 抱負와 새로운 覺醒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中學生이 된 맛에 들떴던 기분이 싹 가라앉고 필자가 이제부터 겪어야 할 일들이 泰山같이 무겁게 느껴졌던 것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버님은 滿洲事變中에도 閔島와 東滿洲地方(牧丹江地方)과 長春, 奉天 등지를 뛰어 다니며 바쁜신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가끔 羅南에 들러 모든 것을 살피 주셨다.

중학교 2학년 봄이 된 어느 날이었다. 아버님이 羅南에 오셨다. 아버님을 따라 저녁을 外食하고 하숙방에 돌아와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문득 아버님께서 “너는 장래에 무얼 할 작정이며 上級學校에서는 어떤 분야를 택할 豫定이냐?”라고 물으시는 것이 아닌가. 中學 2년인 필자가 벌써 장래를 생각했을 리 없고, 더우기가 고 싶은 上級學校까지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겠는가. 아버님은 필자를 벌써 거의 完成되어 가는 人間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인가, 내 自身の 將來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니……’ 하는 괴로운 마음이 들면서 “글쎄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 그러면 잘 되었다. 우리 같이 생각해 보자” 하시기에 필자도 세삼스레 생각하기 시작했다. 얼핏 필자 腦裡에 떠오른 것이 있어 “아버님, 政治學이나 經濟學 같은 것을 공부하면 어떨까요?” 했다. 땀에는 外交官이나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과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사람이 살려면 經濟를 알아야지 하는 생각에서였다. 아버님은 깜짝 놀라면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 지금 우리는 日本의 植民地 노릇을 하는 민족으로서 政治學을 해봤자 代議士가 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한 日本 政府에 들어가 봤자 朝鮮 사람에게 要職을 맡길 리도 없으니 그것은 내 생각으로는 헛 공부에 지나지 않는다. 또 經濟學도 내 생각으로는 장차 問題가 많다. 이 세상이 어떤 經濟體制로 변할지는 지금 누구도 모를 일이 아니냐? 저 북쪽에 있는 ‘검은 꿈’이 너희들 시대에 어떤 움직임을 가질지 누구도 豫測할 수 없으니 오늘의 經濟는 오늘의 體制를 토대로 한 것이기에 긴 안목으로 너희들 시대를 예측해 보진대 안전한 것이 좋다고 믿는다. 더우기 지금 네가 여러 가지 事業에 손대고 있지만 사업이란 銀行關係를 무시하고는 성립될 수 없는데 우리 朝鮮 사람에게 日本 사람들이 큰

돈을 빌려 주어 큰 사업을 도와 줄 리 없다. 그렇다고 日本人 밑에서 너로 月給살이 시키기도 싫으니, 적은 資金으로 해나갈 수 있는 사업, 社會의으로도 安全한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上級學校를 선택하고 그를 위해 特殊科目을 集中工夫하는 것이어야 한다. 내 생각으로는 藥學專門學校 같은 곳에 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病이 없는 시대나 사회는 없을 것이니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安全한 分野이다. 나중에 輿件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資金이 조금만 있으면 번지레한 藥局은 開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일에 소가 걸어가듯이 한 걸음 한 걸음씩 튼튼히 人生 살이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다. 그것이 너의 성에 차지 않으면 製藥會社를 만들자꾸나, 大連이나 新京에 1 백만 원 정도만 들이면 될 것이다. 그래서 獨逸과 貿易이나 하자꾸나.” 필자는 어리벉벉하게 듣기만 하였다. 아버님은 점점 熱이 나시는 모양이었다. “싫으나? 네가 社長이 되건 내가 사장이 되건 그건 그 때 決定하면 될 것이고 滿洲에는 甘草가 많이 있고 白頭山一帶에는 開發해야 할 藥用植物들도 많으니 이것을 개발하여 人類를 위해 奉仕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도 맞고 또 우리가 처해 있는 實情에도 맞는 일이 된다. 그러니 너는 중학을 졸업하면 藥學專門學校에 갈 수 있도록 미리 物理나 化學를 열심히 공부하도록 해라.”

아버님은 이미 필자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오래 전부터 생각하신 것 같았고 그 때에 아버님의 말씀은 모두 옳은 것처럼 느껴졌다. “그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공부도 그런 方向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아버님과 對話는 오늘까지도 있을 수 없는 필자의 記憶인 동시에 필자의 人生을 크게 左右한 말씀이었다.

필자는 그 날 이후 으레히 藥學專門學校로 진학하는 것으로 進路를 決定하고 아무 의심이나 再考도 없이 물리와 화학에 一層 熱中했다.

그렇게 3학년이 지나 5학년이 되었다(그 때의 學制는 普通學校 6년, 中學校 5년, 專門學校 또는 高等學校 3년, 大學 3년으로 되어 있었다).

급우들 중에 高等學校에 간다는 사람이 많아 지니 필자는 專門學校만으로 肝에 차지 않으니 필자도 高等學校에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곧 아버님께 편지로 필자의 進學에 대한 希望이 변한 것을 그럴 듯한 理論을 붙여 글월을 올렸다. 아버님은 곧 回信을 보내 왔다. 즉 당신의 健康이 좋지 못하니(胃腸양이었다) 이제부터 필자가 高校 3년, 大學 3년 등 6년을 修學하게 된다면 그 때까지 당신 健康에 自信이 없다는 점과 당신이나 필자 모두 건강이 좋은 편이 아니니 藥專 3년에 한 단계를 끝내고 그 때까지도 당신의 健康이 괜찮으면 그 때 다시 大學에 진학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그러니 아무런 생각말고 藥專에 進學하도록 하되 필자가 日本人 中學을 다녀서 지금 朝鮮 말도 서툴고 便紙文章도 엉망이니 서울에 있는 藥專에 進學하도록 하라는 嚴命이었다.

그 해 放學 때 집에 돌아가서 어머님께 아무리 말씀드리 보아도 ‘아버님의 말씀에 따르라’는 말씀밖에는 없었다. 이리 저리 各種 會社를 바쁘게 돌아다니시다가 會黨의 집에 오신 아버님은 두 말씀도 없이 ‘그대로 하라’고 할 뿐 도 대체 필자의 의견은 問題로 삼아 주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필자는 우선 아버지 말씀대로 하고 藥專 3년쯤 됐을 때 다시 大學 이야기를 끄집어 내야 하겠다고 체념하고 서울에 있던 京城 藥學專門學校(현재의 서울대 藥大의 前身)에 입학하기에 이르렀다.

藥學專門學校 時代와 나의 失望

專門學校의 敎育方法이 본래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예민한 感受期를 겪고 있는 青年들에게 ‘왜’라는 疑問을 풀어 주는 것보다는 藥師가 되기 위한 약간의 理論科目이 있었고 대부분은 職業을 위한 과목이었던 藥專에서의 敎育에 필자는 滿足할 수 없었다. 이런 경향은 2학년때부터 필자의 큰 苦悶거리로 등장했다. 藥學이란 학문 자체가 이런 것인지 또는 이것이 專門學校라서 그런 것인지 分擘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滿洲에는 甘草生産이 많고 白頭

山 一帶에는 有用한 藥用植物이 많으니” 云云 하신 아버님의 말씀이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아 자·연히 藥用植物學과 生藥學, 그리고 有機化學에 특히 興味를 갖고 공부를 하였다.

敎科書로 쓰여졌던 「藥用植物學」은 전체 400면 정도의 지면에서 植物의 一般理論은 78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藥用으로 쓰이는 植物의 分類 및 解説이었다. 필자는 一般植物理論에서 生命現象의 神技함과 奧妙함을 느껴 다른 植物學에 관한 책도 구입하고 生命現象이 이루어지는 眞理에 흥미를 갖게 되었다.

참으로 신기하였다. 비드나무 가지를 꺾어 倒立시켜 물병에 넣어 두어도 倒立된 윗쪽에서 뿌리가 나와 아래쪽으로 生長하고 아래쪽에서 싹이 돌아 위쪽으로 生長한다. 아무 것도 모르는 植物의 한 개의 가지지만 여기에는 極성이 있어 스스로 上下를 구별한다는 것은 神의 攝理이리라. 콩을 發芽시켰을 때 나오는 뿌리는 이것을 옆으로 놓아도 뿌리는 아래로 향하여 자라고 싹은 위로 향하여 자란다. 이 얼마나 神技한 것인가. 필자는 이런 生命의 현상이 어찌하여 일어나는 것인지 그 현상들 속에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다. 필자의 植物에 대한 疑問은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왜 같은 땅에서 자란 植物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成分이 달라지는가. 물론 遺傳形質에 의한 현상이겠지만 이것이 일어나는 實際過程이야말로 生命의 固有性이며 多樣性이 아니겠는가. 유전 形質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體內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고유성과 다양성을 나타내게 하는가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神技함과 生命의 奧妙함과 興味를 불러 일으켜 주었다.

“藥師가 된 다음 그 때 한 資格을 얻어 놓고 또 大學에 가면 되지 않겠느냐” 하던 아버님의 말씀을 되씹으며 빨리 藥專을 졸업하고 大學에 가야 하겠다고 결심했다.

필자가 좋아하던 運動部의 선수 생활을 清算하고 大學에 가기 위한 공부를 시작한 것이 藥專 2학년 2학기였다.

그리고 그 해 봄에 東京帝大를 졸업하고 藥專 敎授로 赴任한 鈴木라는 日人 敎授를 밤에 집으로 찾아가서 내 心靑을 털어 놓고 大學 가기를 상의했더니 “너 참 잘 결심했다. 꼭 그렇게 하

도록 하라”면서 「物理學」과 「藥學」을 위한 英語란 책을 주면서 격려해 주었다. 鈴木 敎授를 찾은 것은 그 교수가 그 해 봄에 졸업하고 와서 가장 학생의 苦惱를 잘 이해해 줄 것 같았고 나 이도 필자와 5~6세 정도의 차이로 보여 짐속이 쉽기 때문이었다.

그 이튿날 沈鶴鎮 助敎授를 찾아갔다. 沈助敎授는 藥專을 졸업하고 東京帝大 藥學科 選科에 2년 다니고 그 해 봄에 돌아온 분으로서 植物 및 生藥을 가르치고 있었다.

沈先生은 필자의 고민과 결심을 듣고 더욱 기뻐했다. “자네 집은 經濟的으로도 餘裕가 있고 하니 결심할 것 없이 大學에 가라. 本科로 입학해야 하네. 절대로 學士가 되어야 해. 나처럼 選科로 갈 생각은 아예 말라.” 필자는 藥學을 할 생각은 없고 大學에서 植物學을 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된 緣由도 말씀드렸다. “잘 생각했네. 꼭 성공하기를 바라네.” 이 때의 沈先生의 成功이란 말씀은 大學의 植物學科에 입학하는 것을 뜻하였다. 필자는 두 선생님께 상의하여 몹시 격려를 받았던 記憶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그 시대만 해도 藥專을 졸업하면 의례히 就職해서 社會進出하는 것이 正規 코오스였지 다시 大學에 가는 예는 거의 없었다. 혹시 東京帝大 藥學科 選科에 간 예는 하나 둘 있었으나 正規 本科生으로 진학하는 예는 없었다. 그래서인지 운동부 선수 생활을 다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뭐 大學을 간다구……’ 하는 비난의 소리도 가끔 귓전에 들려왔으나 필자는 이미 그런 것에 介意할 心的 餘裕가 없었다.

이력 저력 3년의 세월도 지나 藥專 졸업이 가까웠다. ‘대체 어느 大學에 간담?’ 하고 각 대학을 뒤졌더니 植物學科가 있는 대학은 東京帝大·京都帝大·北海道帝大·臺北帝大뿐 이었고 東北帝大에는 生物學科로 되어 있고, 私立大學에는 어디도 식물학과가 없었다.

필자는 또 쓸데없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이왕 大學生 生活를 할 바에야 서울과 비슷한 環境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환경이 확 바뀐 곳에서 새 맛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때 유행했던 流行歌에 ‘색깔은 검어도 南洋에서는 美人……’ 云云하는 노래에 따라 臺北帝大 植物學科에나 갈까 노리고 있었다. 이 대학에는 植物生理學에 安田眞雄이란 유명한 학자가 있다는 것과 또 熱帶의 바닷가에서 바나나나 따 먹으면서 浪漫을 즐기며 공부나 생활을 즐길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하루는 東京의 神田區에 있는 大橋圖書館에 갔더니 그 점심시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浪人(요즘 말로는 再修生)들이 모여 앉아 ‘니아大學’이 어찌고 저찌고 하지 않는가, 이는 臺北帝大를 가리키는 말이요, 京城帝大는 ‘오보大學’이라고 호칭하고 있었다. 이 두 대학이 모두 植民地大學이라 하여 輕視하는 風潮였다.

필자는 청천벽력 같은 衝激을 받았다. 그래서 臺北帝大行의 생각을 집어 치우고 ‘靑年들아, 큰 뜻을 품으라’고 作別人事를 하고 歸國했다는 닥터 클라크(Dr. Clark)의 北海道帝大를 떠올렸다. 熱帶海邊의 바나나 맛은 하루 아침에 사라지고 坂村徹이라는 유명한 植物生理學者가 있는 눈과 스키와 곰이 나온다는 北海道帝大 理學部 植物學科로 가기로 결정했다.

藥大를 졸업하던 날 필자는 우등생도 아니고 개근한 학생도 아니니 卒業式에 나가 봤자 별 볼 일도 없는 것 같아 日本으로 떠날 짐을 다 꾸러 놓고 明治町(지금의 明洞)에 있는 ‘할리우드’란 茶房에서 레지와 노닥거리며 지내다가 卒業式이 끝날 오후 1시경 藥房에 가서 졸업장을 찾아 가지고 그 날 오후 4시 ‘아까쓰기’란 特急列車로 아무 아쉬움 없이 東京으로 떠나 버렸다.

北海道帝大 時節

東京의 上野驛에서 北海道 札幌行 票를 사고 아침 7시에 떠났는데 아직까지 日本의 東北地方은 눈이 녹지 않아서 汽車窓 밖은 온통 하얀 눈뿐이었다.

이 눈 속으로 기차는 자꾸만 北進하는데 이 汽車沿道는 東海道線(東京과 下關 사이)과 달라서 집도 없고 아주 쓸쓸해 보였다. 더우기 눈이 그대로 있어 찍이나 殺風景한 분위기를 느끼며

이 북쪽이 필자가 과연 즐기며 살 만한 곳이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시작했다.

靑森에서 연락선으로 函館에 이르니 阜頭는 얼음판이고 더욱 쓸쓸했다. 야! 참 이상하다. 明治 初期의 日本 詩人 石川啄木이 즐기며 살았다는 곳이고 珠玉 같은 詩(그 시대는 新詩)를 낸 곳인데 이렇게 쓸쓸할까.

기차는 다시 北進한다. 이번에는 기차 길에 눈이 덮여 除雪車로 레일의 눈을 치워야 기차가 가게끔 되어 있었다. 곳곳에 除雪車を 볼 수 있고 또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넘어진 電信柱를 볼 수 있지 않은가. ‘아차! 내가 피력한 생각을 한 탓으로 크게 잘못 오는 것 같구나’ 하는 돌이킬 수 없는 後悔가 들기 시작했다. 남처럼 평범하게 京都帝大에나 갔더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에라, 모르겠다. 가 볼 대로 가 보자.”

5~6시간 이 생각 저 생각 하는 동안에 기차는 札幌驛에 도착했다.

필자는 마음이 급해서 車窓을 열고 驛의 플랫폼 모습을 내다 보았다. 그 순간이었다.

내 눈 앞에 얼굴색이 흰 어여쁜 아가씨가 머리에 헝카치프를 메고 한 손에 꽃바구니를 들고 “꽃사세요, 꽃” 하며 汽車窓가를 돌아다니는 것이 아닌가.

필자는 눈이 확 떠졌다. 바로 찾아왔다는 생각에서였다. 日本의 어느 汽車驛에서 꽃 파는 아가씨가 있었던가. 또 한번 놀란 것은 “아이스크림 사세요” 하며 뛰어 다니는 販賣員 때문이었다.

필자는 곧 기차에서 내려 그 아가씨에게서 꽃 한 송이를 사고 아이스크림을 사서 驛構內에서 먹고 나니 역시 石川啄木이 아끼던 札幌로 바로 찾아왔다는 안도감에 혼자 즐거운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필자의 北海道 생활의 시작이었다. 3년을 지나는 동안 大學의 럭비부, 야구부 등의 많은 勸誘를 받았으나 공부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植物學科에 입학하고 보니 學科의 전체 학생수가 필자까지 합하여 11명이었고 1학년은 4명뿐이었다.

강의 듣는 것을 한 시간도 빼먹을 수 없었고

실험 시간은 助教, 副手 등 여럿이 같이 들어와서 법석이니 이 또한 늦게까지 같이 있어야 했으며 학생수가 적어 세미나 순서는 부지런히 지정되니 그 준비에 운동할 시간은 없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北海道의 낭만도 있었지만 어쨌든 학교 생활은 몹시 바빴다.

가을 일요일에 郊外의 農場에 나가면 의례히 싸이로(畜産飼料을 저장시키는 建物)에 乾草와 소금을 뿌려 재이는 作業이 있는데 그 건초를 다지기 위해서 시골 처녀들과 같이 싸이로 속에서 봉오도리(둥글게 원을 그리며 노래에 맞추어 출추는 것)를 노래에 맞추어 추면 그 사이에 위에서 떨어지는 乾草가 다져지는데, 이런 일을 두 세 시간쯤 하고 나면 의례히 우유와 빵으로 점심이 나온다. 돌아올 때는 달걀도 몇 개씩 얻어가지고 오는 수도 있다. 北海道 農村은 그 때 이미 大農法이라 하여 農業의 機械化가 보편화되어 있어 秋收期가 되면 추수는 기계가 했지만 그 整理를 위해서는 꽤 많은 사람이 필요했다. 우리 學生들이 도와 주고 아가씨들과 같이 놀고 잘 먹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들의 즐거움일 뿐만 아니라 農場에서도 꽤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모양이다. 해가 질 무렵 우리들이 農場을 떠나려면 꽤 아쉬워 하며 來週日에도 또 놀러 나오라고 하던 農民들의 얼굴 표정이 지금도 눈 앞에 선하다.

北海道大學에서 3년이 지나 卒業論文도 거의 완성될 무렵 졸업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새 苦悶과 藥專을 졸업할 때 대학에 가면 ‘생의 原理’도 모든 眞理도 알게 되겠지 했던 필자의 기대는 오늘날 어느 정도 충족되었단 말인가 하는 自己反省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도대체 藥專卒業 때보다 얼마나 知識이 늘었던 말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대학 3년이 지났어도 그 때보다 오히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졌다는 느낌이었다. 이것은 견딜 수 없는 苦痛이었다.

“高校보다 3년인 藥專에 가서 네 건강도 좋고 사업도 여건하면 大學에 가라”고 하셨던 아버님은 필자의 대학 1년 여름 방학에 腦溢血로 急逝하셨으니 그 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필자에게 “大學을 中退하고 滿鮮日報社(在新京)를 위시한 아버님의 모든 事業體를 運營하는 것이

옳다”라고 忠告도 해주었으나 필자는 그 때 완강히 이를 거절하고 대신 믿을 만한 人士를 社長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다시 北海道로 돌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필자가 精神的으로, 知的으로 成長한 것이 무엇이나. 이 희생을 무릅쓰고 왔던 大學生活의 終點에서 돌이켜 볼 때 오히려 藥專卒業 때보다 더 모르는 것이 많아졌고 더 自身이 없어졌으니 이것이 웬 말일까. 필자는 견딜 수 없었다.

하루는 약간의 菓子봉지를 사들고 필자의 指導教授인 유명한 坂村徹 教授를 택으로 찾아가다.

필자의 訪問을 받고 반가와 하는 교수에게 위에서 말한 마음의 苦痛스러움을 이야기했다. 물론 아버지 逝去後의 모든 이야기까지 걸쳐서... 坂村 教授는 눈을 지긋이 감고 아무 대답 없이 모두 듣고 나서는 “너의 苦痛을 잘 알겠다. 너에 대한 大學教育은 끝났다. 祝福한다. 너는 어떤 것을 알고 또는 모르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있으니, 그러면 大學教育은 끝나는 것이다. 모르는 것은 가만히 두어도 네가 스스로 해 나갈 것이 아니냐?”하고 말했다.

필자는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불붙듯 일어났다.

生命現象의 內部를 파헤치는 生理學을 전공했지만 생리학 중에서도 어느 부분을 할 것인가 며칠을 두고 생각에 잠겼다.

20 세기의 文化를 자(尺)로 재 볼 수만 있다면 그것을 재 가지고 뒤떨어진 곳을 뚫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적당한 자(尺)가 없을까.

어느 날 아침 문득 온도軸과 壓力軸의 二重자로 측정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중학 시절에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物理·化學은 언제나 ‘常溫, 常壓’에서란 말이 붙어 들어가니, 이제 橫軸으로 溫度軸을 놓고 이에 壓力을 縱軸으로 하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이 두 條件을 橫軸과 縱軸의 十字架 모양으로 하니, 오늘의 科學의 範圍가 이 平面의 두 軸이 교차되는 附近에서 그리 떨어지지 못하는 좁은 범위내에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 두 축의 交叉點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問題를 찾는다면 劃期的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필자는 溫度軸을 따라 갈 것인가, 壓力軸을 따라 갈 것인가 생각한 끝에 그 때만 하더라도 高壓이나 低壓에 대한 연구 시설이 많지 않았기에 溫度軸을 따르기로 했다. 생물체 原形質의 기초 물질은 蛋白質인 관계로 高溫쪽은 곧 응고하기에 低溫쪽을 따라 既存範圍를 넓힘으로써 색다른 研究에 착수할 것을 결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研究所는 어디에 있는가. 영하 70~80°C 까지 降下시킬 수 있는 冷溫室을 구비한 연구소는 어디에 있는가.

北海道大學에 설립 예정인 低溫研究所는 1년 여를 기다려야 된다니 급한 마음에 그럴 수도 없고 東京에 있는 理化學研究所에도 그런 연구실은 없었다. 그 때 마침 신문에서 보니 滿洲에 大陸科學院이란 滿洲 國立研究所가 있는데 이곳에 영하 88°C 까지 내려가는 低溫實驗室이 落成되어 이의 연구에 크게 공헌한다는 기사를 보았다.

옳지 됐다. 영하 88°C 라면 필자가 하고자 하는 온도 한계는 충분하리라.

그 곳에 가기로 결정하고, 新京에 계시던 아버님의 친구이신 尹相弼氏께 그 뜻을 편지로 전했다. 이 尹相弼氏는 滿洲事變 당시 日本軍 陸軍少佐로서 만주에 출병하여 수많은 韓國僑胞를 위해 일했을 뿐 아니라, 곧 예편하시고 開拓總團의 勅任參事官으로 계시면서, 全滿洲에 있는 韓國人의 생활과 利權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분이다. 關東軍參謀의 세력이 하늘같이 높고 강했지만 이 사람들보다 陸士先輩인 尹相弼氏에 대해서는 선배에의 敬意를 표하지 않을 수 없었고, 어려운 문제도 尹相弼氏께 부탁하면 척척 해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던 분이다.

이 尹相弼氏로부터 즉각 회신이 왔는데 “대단히 좋다. 그러나 大陸科學院은 國務院 所屬이기에 이왕 거기 올 바에는 高等考試(技術官)을 치르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志願書를 동봉해 보내 주셨다. 그 때가 아마 大學卒業期를 앞두고 滿洲國에서는 高試를 하는 시기였던 모양이었다. 생각하니 級이 높아야 자기 일도 하기 쉬운 것 같아 응시하기로 했다.

그 덕택에 大學卒業後 大同學院이란 곳에서 滿洲에 관한 모든 것을 배웠다. 大同學院이 끝날 무렵 배정이 발표되는데, 나는 뚜렷이 大陸科學院을 지망했음에도 불구하고 哈爾濱農大 教授로 발령이 나지 않겠는가. 滿洲의 대학이란 日本의 大學과 달라 日本의 高農에 해당하는 專門學校 레벨이다.

이왕 學校 教授를 할 바에야, 母校 京城藥專에서 오라는 것도 뿌리치고 低溫研을 따라 여기 왔는데 哈爾濱農大 教授라니 말이나 되는 말인가.

이에 總務廳 人事司長을 찾아가서 辭表와 坂村 教授의 大陸科學院長에게 보내는 紹介名刷를 내놓고 大陸科學院 副研究官으로 바꾸어 주지 않으면 사표를 받아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人事司長(人事局長)이 꺾여 그 이튿날 教授人事를 취소하고 大陸科學院으로 바꾸어 주었다.

이 곳에서 몇 편의 論文을 썼고 大陸科學院 근처에 있는 法大와 醫大에 時間으로 나가며 4년의 세월이 지났다.

解放과 더불어 서울에 온 것이 1945년 8월 21일이었다. 해방 이전에도 生物學의 건설을 위해 갖은 努力을 다해 왔으나 이것은 다른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이제 할당받은 紙面도 많이 초과되고, 또 나에게 준 주제인 내가 專攻學問을 選擇하게 된 理由도 모두 다 이야기한 것 같아서 이만 줄이기로 하겠다. *